



東國大同窓會報

발행인 : 전영화 | 편집인 : 이계홍 | 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02호 (재)동국장학회 | T. 02) 733-0303 F. 02) 733-0306 | 인쇄 : (주)한우리SJM

2018년 (불기 2562년) 11월 30일 (금)

<http://dongguk.info>

제246호

총장이 바로 동국의 미래다

각 구성원 ‘직선제’ 요구 … 모교 운영 독립성 확보해야



▲ 차기 총장은 누구? 모교 제19대 총장 선출을 앞두고 교수·교직원·재학생·동문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다.

교수·직원·학생회 직선제 요구

내년 1월 중으로 예상되는 모교 차기(제19대) 총장 선출을 앞두고 학내외 구성원들 사이에 신임총장 자격과 선출방법을 놓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동문사회에서도 현재의 총장 선출제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손기범 대구경북동창회장은 “개교 112주년 전통의 동국대에서 총장 선출때마다 외부 입김에 대해 우려한다. 이번 기회에 대학 구성원이 적극 참여하는 상향식 선출을 통해 지지받고 신뢰받는

총장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향식 아닌 상향식 선출 바람직”

총장 선출방법을 두고서 교수협의회가 11월8일 교수, 직원, 학생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장 직선제와 대학의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2차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직선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권승구 교수협의회장은 “대학의 민주주의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해 교수, 학생, 직원, 동문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생들은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추진위원회’ 소속의 안드레 전 48대 총학생회장이 11월13일부터 만해광장 조명탑에 올라가 총장 직선제 즉각 실시와 현 총장 연임 반대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내려오지 않겠다며 농성을 진행중이다.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도)도 11월15일 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장 직선제 관철을 위한 학생들의 연대를 촉구했다.

총장선출과 관련해서 학교법인 관계자는 “현재 총장 선거 일정과 방식은 정해진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동문들이 바라는 신임 총장은 아래와 같다.

“종단 등의 외풍에 자유로와야”



우리 모교는 학교법인 특성상 종단 등의 영향이 작용했다. 그 원인 제공은 결국은 총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자초해 정치판화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외부세력없이 자유롭게 경쟁해야 한다. 과거에 보면 모교 법인이 종단의 외풍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한 적이 있기도 했다. 대학다운 대학, 구성원이 행복한 대학을 위해 총장 후보자들부터 양심이나 상식에 준하는 모범적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황우 경행63, 모교 명예교수〉

“탄탄한 재정확보에 적극 나서길”



21세기는 4차산업시대와 글로벌 시대로 특징된다. 창조지식이 지배하는 시대, 승자가 모든 사회를 독차지하는 시대에 대학은 당면한 경쟁에 냉철하게 대응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미래비전은 풍부한 재정적 확보와 폭넓은 네트워크속에서 가능하다. 모교가 필요로 하는 대학총장은 지성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획기적 기금 조성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경영인이 필요하다.

〈박진호 경영65, 부산동창회장〉

“도덕성에 흠이 없는 인격자”



요즘은 예전과 달리 장관 등을 추천할 때는 국회청문회를 거치고 있다. 인사대상자의 병역문제, 논문표절, 전과기록, 재산형성과정, 위장전입, 과거 어록까지 따지는데 그것은 흡결이 없어야만 국민이 신망할 수 있고 소신껏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제시대부터 굳건한 3대 사학으로 평가 받았던 동국대가 70년대 이후 후발대학으로 밀렸는데 신임 총장은 최소한 4대 사학 진입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바란다.

〈장세균 철학67, 전북전주동창회장〉

“언론사 대학평가 향상을 기본”



지난달 발표된 2018 중앙일보 대학종합평가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지난 2011년 11위에 랭크되어 자부심을 느꼈는데 금년도는 17위에 그쳤다. 대학평가에 대해 찬반론도 없지않지만 동문·학부모·수험생·사회인 입장에서는 달리 학교의 수준 및 정보를 접하기 어렵다. 대학 운영에 다른 요소들도 많지만 크고 작은 대외평가는 외부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실과 함께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김인수 농학76, 에이엠지코리아 대표〉

“열린 마음으로 포용적 리더십을”



대학의 주인인 재학생과 교직원, 그 터전을 벌판으로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동문들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모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행복감을 느껴야 한다. 오케스트라에서는 지휘자가 그 어떤 악기의 경중에도 편중됨이 없이 공정하고 다양한 악기의 소리를 세심하게 살피며 이끌어갈 때 가장 멋진 하모니가 나온다. 다양한 목소리에 열린 마음으로 깊이 성찰하고 지혜와 용기를 갖춘 포용적 리더십을 요구한다.

〈조충미 교육81, 여자총동창회 수석부회장〉

“대학의 혁신과 변화 견인해야”



대학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총장이었으면 한다. 모교는 불교 종립학교라는 이미지 탓인지 보수적 색채로 비쳐지고 있다. 사회·경제·문화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방안을 찾아 교육에 담아내야 한다.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대학을 위해서는 전통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창조적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명문동국 재창조에 소신있게 행동하는 총장을 원한다.

〈김찬욱 산업공학83, ROTC총동문회 사무총장〉

서울캠퍼스 1호 校舍 ‘명진관(舊 石造館)’ 문화재 되다



문화재청 지정 … 건립당시 한국석조건축상 수상

1956년 건립된 서울캠퍼스 최초의 교사인 명진관이 문화재로 등록됐다. 문화재 공식명칭은 서울 동국대학교 구 본관(석조관)으로 등록 문화재 제735호이다.

서울 본교의 상징적 건물이 되고 있는 명진관(옛 석조관)은 2015년 등록문화재 신청을 시작으로 건축물현황 현장 조사, 문화재 전문위원 현지방문 조사 등을 거

쳐 10월말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6일자로 문화재 등록이 확정됐다. 1950~60년대 대표적 경향인 외벽석재 마감을 가지고 있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보존한 건물이다.

우리나라 대표 건축가 중 한 명인 송민구(1920~2010) 건축가가 설계한 명진관은 1956년 12월 지하1층, 지상5층의 연

건평 1,462평으로 건립됐다. 2억5000만 원이라는 당시로서는 막대한 공사자금이 소요됐는데 미8군철도수송대의 자재지원과 학생들의 기부금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명진관은 건립당시 한국석조건축상을 받았으며 그 규모와 견고성, 설계와 미학적 배려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딕풍 건물인 명진관은 튜더 양식으로, 단순화된 외관과 중앙 4층 탑부를 중

심으로 왕(王)자 대칭을 한 것이 특징이다. 중앙부 중심을 좌우 대칭으로 강조한 것과 석재로 마감한 외관 등은 당시 대학 본관으로서의 상징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000년 3월 노후된 지붕을 철골조트러스, 단열판 및 동판으로 시공하여 건물의 내구성을 증가시켰다.

현재는 문과대학 및 이과대학 건물로 사용 중이다.

2018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순위 17위 올라

인문계열 대학 종합순위		자연계열 대학 종합순위		공학계열 대학 종합순위		사회계열 대학 종합순위	
순위	대학	순위	대학	순위	대학	순위	대학
1	서울대	1	KAIST	1	포스텍	1	서울대
2	한양대(서울)	2	포스텍	2	KAIST	2	성균관대
3	고려대(서울)	3	서울대	3	성균관대	3	고려대(서울)
4	성균관대	4	성균관대	4	한양대(서울)	4	한양대(서울)
5	연세대(서울)	5	UNIST	5	고려대(서울)	5	경희대
6	서강대	6	한양대(서울)	6	UNIST	6	이화여대
7	인하대	7	고려대(서울)	7	서울대	7	연세대(서울)
8	이화여대	8	연세대(서울)	8	연세대(서울)	8	중앙대
9	경희대/중앙대	9	중앙대	9	경희대/서강대	9	인하대
11	건국대(서울)	10	서강대	10	서강대	10	한국외국어대
12 동국대(서울)		16 동국대(서울)		14 동국대(서울)		18 동국대(서울)	
13	한국외국어대	18	부산대	16	국민대/서울시립대	19	한양대(ERICA)

모교가 2018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전년도와 동일한 종합순위 17위를 기록하면서 앞으로도 10위내 진입이 점점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순위 발표를 보고 교육자로서 실망이 컸다는 김사성(국교69, 전 충북여고 교장) 동문은 “모교가 말로만 역사와 전통

을 내세우며 자위하고 있는 사이에 후발 대학들은 빨 빠르게 추월하고 있었다”면서 “대학평가 발표는 일선 고교의 진학지도에 절대적이다”고 말했다.

황영남(국교80, 전 영훈고 교장) 동문은 “과거 지방 국립대학들이 두각을 보일 때와 비교하면 모교의 위상이 확실히 향상된 것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과 비교해보면 과연 합당한 순위인지 자문해보아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번 평가에서 계열별로는 인문계열 12위, 사회계열 18위, 자연계열 16위, 공학계열 14위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교수연구 24위, 교육여건 24위, 학생성과 7위, 평판도 20위였다.

세부지표 중에서 상위권에 오른 지표

는 교수당 교외연구비 10위, 세입대비 기부금 11위, 외국인교수비 4위, 외국인 학생비 3위, 교환학생비 7위, 순수취업률 6위, 유지취업률 10위 등이었다.

인문계열 취업률 4위, 사회계열 취업률 9위 등 취업률에서는 비교적 높은 성적을 거뒀다. 모교의 선진화된 취업지원 제도와 재학생들이 해당업계에 진출해있는 선배와의 1대1 멘토링을 통해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교의 최근 10년간 중앙일보 평가순위를 살펴 보면 2009년 28위, 2010년 17위, 2011년 14위, 2012년 13위, 2013년 13위, 2014년 11위, 2015년 19위, 2016년 18위, 2017년 17위, 2018년 17위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제 15교구 본사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방장 중봉 성파 대종사

주지 향전 영배

유나 보장 영일	총무국장	혜 철	사업국장	석 운
율주 중산 혜남	연수국장	만 초	사회국장	송 정
강주 영은 현진	기획국장	선 본	포교국장	선 림
박물관장	교무국장	인 경	호법국장	선 자
인산 지준	재무국장	무 문	원 주	인 원

영축총림 통도사 대중일동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 583번지)
전화 : 055)382-7182 팩스 : 055)382-7196 www.tongdosa.or.kr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풍년

회장
김 환 배

(68/72 연료공학)

경기도 광주시 절골길 53-9 (장지동)
Tel. 031 . 761 . 1003
Fax. 031 . 797 . 8889
E-mail. pn-onion@naver.com

전영화 회장 미국 동창회 방문 … 조직 활성화 공감

LA 김경재 동문 초청 받아

전영화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총동창회 회장단이 미국 LA거주 김경재(농학65, 코요테골프클럽 회장)동문의 초청을 받아 남가주와 뉴욕동문회를 순방했다. 남가주 LA지역은 정환민 사무총장, 김진억 상임부회장, 김오현 상임부회장 등이, 뉴욕지역은 박대신 수석부회장, 신관호 사무국장이 동행했다.

해외동창회 조직 활성화의 일환으로 미국을 방문한 전영화 회장 일행은 10월 30일 LA에서 김경재 前 미주동창회장과 이금재(경행67, 덴버 운영위원)동문을 만나 격의없는 대화로 동창회 발전과 모교사랑의 온도를 높혔다.

전영화 회장은 “LA동문회가 교포사회에서 모교의 이름을 빛내고 있음을 익히들었다”면서 “동국인의 자긍심으로 계속



▲ 전영화 총동창회장은 뉴욕 배시영(왼쪽 두번째) · 김경재(오른쪽 두번째) 동문과 만나 환담했다.

해서 회원간 친목과 더불어 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깊은 애정을 쏟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재 동문은 환영인사에서 “오늘 총동창회 임원들을 만나뵈니 모교에 와있는 느낌이다”면서 “2004년부터 7회에 걸쳐 150여명의 모교 재학생 후배

들에게 북미주 해외탐방연수 기회를 제공했다. 계속해서 후배들에게 견문을 넓혀주고 싶다”고 전했다.

동부지역을 방문한 전영화 회장은 11월 2일 메릴랜드주 마운틴게이트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와싱턴 김세훈(전산

72, illumun 사장) 동문을 만난데 이어 11월 3일 밤에는 뉴저지주 서머싯의 페어브릿지호텔에서 뉴욕동문회 배시영(경제 58) 고문과 김경재(경행72) 전 회장을 만나 현지 동문활동과 모교 소식을 교환하며 끈끈한 동문관계를 재확인했다.

배시영 고문은 전영화 회장에게 동창회 발전기금 \$1,000를 전달했다.

한편 전영화 회장은 현지 동문들에게 동국대 로고가 새겨진 혁대를 전달하며 영원한 동국인으로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격려했다.



▲ 전영화 회장과 정환민(오른쪽) 사무총장이 LA 김경재(왼쪽 두번째) 동문 등과 견배하고 있다.

‘동국인의 밤’ 12월 13일로 확정

2018 – 3차 상임위원회 열어

본회 2018-3차 상임위원회가 10월 11일 오전 7시30분 동창회 회의실에서 열려 ‘2018 동국인의 밤’ 행사를 오는 12월 13일 앰배서더호텔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수석부회장으로는 박대신 상임부회장을 회장께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상임위원들은 “동국인의 밤 행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 동문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동문들의 가슴에 와닿는 프로그램으로 즐거움, 보람, 희망을 담아내자”고 뜻을 함께 했다. 행사기념품으로는 동국대 마크가 새겨진 혁대로 결정했다.

수석부회장에 박대신 동문 임명



전영화 총동창회장은 회칙 10조 (임원의 선임) ④항에 의거, 본회 수석 부회장에 박대신(69국문, (주)동우 대표 이사) 상임부회장을 임명하고 10월 15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명은 정환민 수석부회장의 사임에 따른 것이다.

박대신 수석부회장은 본회 상임부회장, 26대~27대 임원선거관리위원장, ROTC 총동문회장 등을 역임했다.

차기 총동창회장 추대위 1월 발족

총동창회장 등 본회 차기 28대 임원(회장 및 감사) 선임을 위한 정기총회가 내년 3월 개최될 예정이다.

이는 회칙 15조에 따른 것이며 현 전영화 회장의 임기는 내년 5월 종료된다.

전 회장은 2015년 5월 회장에 당선되어 2년 임기후 2017년 다시 연임되었다.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총회는 내년 3월 마지막 주로 예상되고 있다.

신임 임원 선출은 지난 3월 22일 개정된 회칙에 의거, 회장 및 감사 추대위원회에서 추대된 자를 총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별도의 ‘회장 및 감사 선임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사무처는 내년 1월 중 ‘회

장 추대위원회’를 발족시켜 선거 업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회장 및 감사 선임규정에 따르면 추대위원회는 10인이상 15인 이내로 회장 및 감사 임기 2개월전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회장 후보자의 자격으로는 △모교의 학부를 졸업한 자 △총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고 모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동문사회에서 높은 신망을 받고 있는 자 △본회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자로 하고 있다.

한편 총동창회 집행부는 능력과 소신, 봉사정신이 투철한 후보가 다수 추천되길 기대하고 있다.

‘2018 동국인의 밤’ 행사에 초대합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함께 나누고, 새해의 더 큰 도약을 결의하기 위한 ‘2018 동국인의 밤’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두루 참석하시어 동국인의 자부심을 빛내주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8년 12월 13일(목) 오후 6시30분 • 장 소 : 앰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 (장충동)

• 회 비 : 5만원 • 문 의 : 02-733-0302, 0303 (총동창회 사무처)

※ 행사 당일 참석자 기념품과 모교 카렌더 등을 드립니다 (각 단위동창회별 참가자의 사전접수를 환영합니다)

2018년 11월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차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이름이 바뀌어도
차 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DB손해보험의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동문

“나는 갈등과 대결을 해결하는 소통의 용접공”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 중 하나가 홍영표(철학78) 동문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국회 운영 문제로, 최근 불거진 노사 합의문제로, 그리고 여야협상 문제로 분초를 쪼개 일해도 시간이 부족한 형편이다. 집권 여당 원내 사령탑으로서 쌓인 국정 현안을 처리하느라 수면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홍 동문과의 인터뷰는 힘들었다. 일정을 잡았다가도 국회 일정 변경, 원내대책 회의, 노조 대표들과의 협상 일정 등으로 인터뷰 약속이 번번이 밀려났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서면 인터뷰로 진행했다. 우선 홍 원내대표의 대학생활부터 질문했다. <정리=신관호 사무국장>

- 대학 입학 시절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문학을 하고 싶었다. 특히 시를 쓰고 싶어서 클래식 음악다방에서 문학인들과 교류하곤 했다. 그것이 소중한 시간으로 남아있다. 현실 문제에 천착하면서도 영혼을 탐구하는 시세계에 빠지면서 젊은 시절의 꿈과 미래를 그리곤 했다.”

대학시절 “문학하고 싶었다”

- 언제부터 노동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었는지요. 당시 사회분위기와 학생운동 경험을 말씀한다면?

“대학교에 입학 후, 클래식 음악감상실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 1978년 당시는 박정희 유신 통치가 죄악에 이르렀을 때인데, 그땐 개인의 자유를 모두 국가에 저당잡힌 꼴이었다. 이런 와중에 음악감상실에 모인 청년들과 함께 김지하의 시를 접하게 됐다(지금은 변절했다는 말을 듣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김 시인은 젊은이의 우상이었다). 이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를 읽고 세상에 대한 시야, 폭넓은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 자연히 시대의 소명을 따라야 한다는 믿음이 생겼다. 민주주의, 독재정권의 문제에 대해 현실 인식을 하면서 이제는 실천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유신 반대 민주화투쟁에 뛰어들었다.”

민주화 투쟁위해 노동현장으로

홍 동문은 5.18 광주민주화항쟁 이후, 민중이 중심이 되지 않은 학생들만의 시위로는 결코 군부독재를 물리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학생이라는 일체의 기득권을 버리고 직접 노동자, 농민이 되어 그들 속에서 살기 위해 노동현장으로 뛰어들었다.

- 언제부터 노동운동을 시작했습니까?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색 지식인의 고민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각성 때문이었다. 그래서 직업훈련원을 거

쳐 1983년 대우자동차 차체부에 용접공으로 입사한 것이 첫 사회활동의 시작이었다. 이후 우리나라 노동운동사에서 한 분기점을 이룬 대우자동차 파업 문제를 노조 대표로 참여해 몇 차례에 걸친 김우중 대우 회장과의 교섭 끝에 노사문제를 일단락 지었다. 그후 나는 영국 대우자동차 판매법인 주재원으로 런던에 파견되었다. 그곳에서 6년간 일하면서 세상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홍 동문은 귀국한 뒤 노무현 정부에 들어가 이해찬 국무총리실 시민사회 비서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때 한미 FTA 국내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기업과 정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다. 각기 다른 ‘갈등의 조각들’을 잘 이어붙인다고 해서 ‘용접공’이란 별명을 가졌다.

이 시간 현재도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끝까지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무르지 않느냐는 비판도 있지만, 설득과 포용의 정신을 놓치지 않고 있다.

노무현 경선캠프서 정치활동 시작

- 앞에서 정치 입문 동기를 자연스럽게 언급했지만 구체적 계기는요?

“IMF시기 대우자동차는 부도를 맞았고, 6년 해외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니 나 역시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 한국에 집도 없고 생계수단도 막막한 40대 중년이었던 시절이다. 그 즈음 노동운동 후배들을 만났는데 ‘천하의 홍영표가 무슨 돈을 벼냐 정치를 해야지!’ 라더군요. 그래서 노무현 후보를 도와주자, 경선에서 떨어지겠지만 4년 뒤에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에 노무현 경선캠프부터 정치활동을 시작했지요. 유시민, 문성근, 정태인씨 등과 개혁국민당을 만들어 조직위원장으로 맡게 된 것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된 동기다.”

- 정치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은?

“18대 국회부터 환경노동위원회의 역

사와 함께 하면서 환경노동위원장의 임기 마지막을 앞두고 근로시간 정상화를 이룬 일이다. 2003년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됐지만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 해석으로 주 68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는 상황이었다. 2013년 근로시간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노사정 협의안이 재계의 반발로 무산되었고, 또 2017년 여야 3당 간사 합의를 이뤘으나 여야 의원들의 입장차이로 입법이 무산되었다. 법안 소위 마지막 날 총 7차례의 정회를 거친 긴박했던 하루였는데, 자정이 넘어서 극적으로 의견조율이 마무리 돼 합의가 이루어졌다.”

대화와 소통은 가장 필요한 덕목

- 어떤 원내대표로 기억되길 바라지요?

“정치는 대화라고 생각한다. 갈등과 반목을 넘어서서 대화를 통해서 토론하고 타협하면서 합의에 도달하는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를 이끈 원내대표로 남고 싶다.”

- 좌우명이 있다면?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용접공으로 일을 했던 나는 언제부터인가 스스로를 이 시대의 ‘용접공이 되리라’고 생각해왔다. 런던에서 영업 일을 했을 때도 자동차 영업 일이 또 연결하고 소통하는 용접 일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느꼈다. 국무총리실의 시민사회 비서관이 되어서도 사회와의 가교와 소통, 즉 사람과 사람, 일과 일을 붙이는 용접 일이라고 생각했다. 방폐장문제, 혁신도시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사회갈등과 문제를 뺨질하고 수리하는 그런 일을 해왔다. 조용한 가운데 모두 잘 마무리했다.”

외관부터 유연해보이는 인상이다. “이라 보니 다음엔 더 큰 갈등이 쌓여있는 FTA를 다루라는 과제까지 주어지게 됐다”고 웃었다. 대화와 소통,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 가족관계와 취미는 무엇인지?

“두 딸을 둔 아빠다. 취미로 요가를 좋아하는데 시간이 없어 하루 30분 정도 스트레칭으로 대신하고 있다. 4~5년 전부터는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지역구인 인천 부평구 을에서 국회까지 30Km를 1시간 40분에 달려온다. 일주일에 2~3회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려 하고 있다.”

“사회에 눈뜨고 정치에도 관심을”

- 모교나 총동창회, 재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모교 후배들에게 먼저 한마디 한다면, 학생으로 할 수 있는 일과 꼭 해야 할 일을 찾아 행동했으면 좋겠다. 요즘은 청년 취업이 어려워서 취업에 도움되는 수업을 듣고 인맥을 쌓기 위한 동아리 활동을 주로 한다고 알고 있다. 캠퍼스의 낭만이나 젊은 날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없다고 한다.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사회에 눈뜨고 특히 정치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싶다. 나와 정치는 상관없다고 외면하면 나쁜 정치가 개입할 소지가 있다. 고대 아테네 페리를레스는 <당신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가 당신을 자유롭게 두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정치참여 거부에 대한 불이익 중 하나는 당신보다 하등한 존재에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플라톤도 말했다.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도 좋고 관심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방법도 있다.”

동문사회에 대해서는 “동국인의 결속과 우애를 느낀다”면서 총동창회가 구심점이 되어 30만 동문 조직을 이끌어간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동문사회로부터 배우는 입장이라면서 언제나 모교와 함께, 동문사회와 함께 하는 동국인이 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인천 부평구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한 민주당 중진이며, 환경노동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안시성’ 동문 단체관람 500여명 상영관 가득

총동창회(회장 전영화)는 제4회 문화행사로 조인성(연영06) 동문이 안시성 성주 양만춘 역으로 열연한 영화 ‘안시성’ 단체관람을 10월4일 오전 대한극장에서 가졌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은 이날 동문 초청 영화감상은 동국가족 500여명이 상영관을 가득 메웠다.

전영화 총동창회장은 영화상영에 앞서 “동문이 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 역사적 교훈이 담겨진 영화를 감상하시며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 되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한편 흥종표 동문은 간식용 떡 500명분을 협찬했다.



본회 상벌위원회 구성

전영화 총동창회장은 11월15일 박대신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벌위원회 위원 7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전임 위원들의 임기(2년) 만료에 따른 것이다. 상벌위원회는 본회의 포상 및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회칙 31조에 그 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촉된다.

△위원장=박대신(국문69)

△위 원=이경석(도시공학67) 김진억(경영73) 김오현(체교76) 최대식(회계79) 윤병관(화공82) 차연신(연영85)

“반갑다 친구야” 88학번 입학30주년 홈커밍데이



18학번에게 후배장학금 전달

‘88학번 입학30주년기념 홈커밍데이’ 행사가 10월 13일(토) 오후 3시 모교 중강당 및 상록원에서 150여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변화된 학교 발전상을 체험하고 동기간의 우애를 다졌다.

1부 환영행사에 앞서 팔정도 곳곳에서 펼쳐진 식전행사에서는 학위복을 입고 동기끼리 추억의 사진을 촬영하고, 따뜻한 커피 한잔을 마시며 1988년 대한민국 10대 뉴스, 동국대 10대 뉴스, 졸업앨범 등을 보면서 당시 기억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졌다.

윤희동(전자계산) 동문의 사회로 문을 연 1부 행사는 ▲학교홍보영상 관람 ▲내외빈 소개 ▲88학번 준비위원회 위원장 환영사 ▲총장 치사 및 기부보드 전달 ▲총동창회장 축사 및 금일봉 전달 ▲18학번 환영인사 및 장학증서 전달 ▲87학번 준비위원회 위원장 감사패 전달 ▲추억의 영상 관람 ▲동국동문합창단 축하공연 ▲예술대학 연극학부 축하공연 ▲백

상 응원단 축하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가비 및 후원금의 일부를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달하는 입학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의 전통에 따라, 이날 88학번 동문들은 30년 후배인 18학번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88년도 주요 뉴스와 88학번 신입생 OT 및 MT 등 20대의 추억의 영상을 보며 동문들은 가슴 뭉클한 감동을 넘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합창·뮤지컬 공연 등 환영행사

축하공연에서는 동국동문합창단 선배들이 88학번 후배들을 위한 환영 공연을 펼친데 이어 예술대학을 대표하여 연극 학부 재학생 20여명이 뮤지컬 갈라쇼 ‘ALL SHOOK UP’을 선보여 중강당을 한순간 뮤지컬 공연장으로 바꾸어놓았다. 마지막 피날레 공연으로는 과거 동대문운동장에서 야구부를 응원하던 학창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백상응원단의 리

드에 따라 학교 응원가를 큰 소리로 열창했다.

88학번 준비위원장 차권준(통계) 동문은 환영사에서 “인생에 있어서 나이 30은 ‘입지’라고 한다. 졸업 후 세상 밖으로 나와 경험한 세상사, 저마다 가지고 있는 미래의 희망과 꿈들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다시 한 번 우리들의 ‘입지’를 세워보자. 모교가 더 크게 웅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펼치고 싶은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뜻을 세우자”고 말했다.

“총동창회와 함께 내일을 열자”

전영화 총동창회장은 정환민 사무총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모든 동국가족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진심으로 사랑하는 동국을 만드는데 총동창회가 앞장서고 있다. 여기에 88학번이 주역으로 총동창회 발전에 함께 나간다면 동국의 힘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총장 보광스님은 치사에서 “모든 동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모교, 모든 동국가족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동국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더욱 분발하겠다. 여러분들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동국의 발전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상록원 3층에서 진행된 2부 행사에서는 만찬과 레크레이션을 통해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회포를 풀었다. 더불어, 동국동문합창단 선배들과 함께한 레크레이션 시간은 만찬장을 더욱 뜨거운 열기로 화합의 장으로 만들었다.

신용평가기관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 청년 3명 중 1명은 채무를 1건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채무규모는 약 60조원에 달하고, 잠재부실률도 6%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타 연령층에 비해 부실위험이 높다. 대학 학자금 부담이 크고, 취업난 때문에 실업률도 높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빚의 뒷에 걸린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무분별하게 돈을 빌리거나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대학생이 많다는 점이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데, 금융지식이 부족한 대학생에게 신속성과 간편함을 무기로 접근하는 대출상품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다. 전도양양한 미래를 꿈꾸어야 할 청년이 과중채무에 시달려 출발선에서 주저앉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청년이 빚의 뒷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첫 번째 답은 신용교육이다. 요즘은 대학교 등록금이 비싸고 생활비 부담도 만만치 않아서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학업을 마치는 학생이 드물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 동국인칼럼

채무의 뒷에 걸린 청년층 구하기

금융을 이용해야 한다면 현명한 금융소비자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 신용교육은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으로 금융을 이용하는 습관을 기르게 함으로써 채무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 이미 발생한 채무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루속히 대학생에게 신용교육이 확산되어야 한다. 대학이 금융교육 전문기관과 협력해서 온라인 신용교육 강의 콘텐츠를 만들어 학점인정 교양과목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 대출을 받기 전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금융회사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훨씬 낮다. 예를 들면 생활비가 부족한 대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으로 장학재단에서 연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생활비 대출이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청년 헛살론’도 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 대출은 이자율이 연 20% 내외지만, 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이자율은 연 2%대에 불과하고,’ 대학생 청년 헛살론’은 연 4%대이다. 장학재단 대출을 먼저 이용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 헛살론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고 있다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대학생이나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대학생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미취업청년은 최장 4년 동안 채무상환이 유예되므로 채무부담

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 유예기간이 끝난 채무원금은 형편에 맞게 장기분할상환 하면 된다. 채무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상담 받아 볼 것을 권한다.

필자가 지난 10월 초 취임하여 기관장을 겸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재기와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 사다리’ 역할을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취업 및 창업지원을 하며, 금융교육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자를 구제하는 일과 신용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 두 기관이 경제적 약자인 청년층과 서민의 자활을 도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해 본다.

이 계 문

(산업공학80,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ROTC총동문회

| 신임 회장에 21기 김문선 동문



ROTC 총동문회 결성 30주년기념 정기총회 및 총동문회장 이·취임식이 12월5일 오후6시 왕십리 민자역사 6층 디노체컨벤션에서 열린다. 노향선(20기) 회장에 이어 신임 회장에는 21기 김문선(전자공학79, (주)다물시스템 대표이사, 사진) 동문이 취임한다.

또 이날 행사는 송년회와 26기 임관 30주년 축하회도 겸하게 된다.

| 장학금 조성 회장배 골프대회

후배 장학금 모금을 위한 '제2회 동국대 ROTC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가 10월29일 소피아그린CC에서 100여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라운딩에 앞서 1기 원용선, 9기 성영석, 20기 노향선, 20기 동문회, 21기 김문선, 21기 이승환, 23기 윤재민, 24기 동문회, 24기 유종현 동문 등이 장학금을 기부했다. 3기 노환영, 22기 황문섭, 23기 정동석 동문 등은 새롭게 모금사업에 동참해 이날 행사의 취지를 빛냈다.

이날 모금액과 소액기부를 포함해 ROTC 동문회가 올해 학교에 전달한 장학금은 2천만원을 넘었다.

| 제1회 대학문무축구대회 우승

112 ROTC의 동국FC 엘리펀트축구단(단장=노향선 ROTC총동문회장)이 제1회 대한민국 대학문무축구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7개대학 ROTCian 팀이 참가한 가운데 9월29일 용인축구센터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이정근(46기) 동문은 최우수선수상, 이남식(22기) 감독은 지도자상을 각각 받았다.

| 여자총동창회 | 여성멘토들의 두번째 토크쇼



여자총동창회(회장 김애주, 76영문, 모교 영문과 교수)는 '동국대 출신 여성 멘토들이 들려주는 꿈과 도전, 그 싱그러운 삶의 이야기' 시리즈 2 월1일 모교 혜화관 2층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박미영(84경행) 서울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경정), 차연신(85연영) KGRP 회장, 나송희(05 미술) 돌체유럽유학원 원장을 초청, 자신들의 분야에서 꿈을 가지고 도전하여 치열하게 일구어낸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나갔다.

전영화(65경행) 총동창회 회장, 전미경(87가교) 모교 역량개발센터장 등이 참석해 격려했으며, 자리를 함께 한 후배 재학생 60여명은 선배들의 인생 이야기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 지리교육과 | 학과 발전기금 3천만원 전달

지리교육과동문회(회장 조명일, 81학번)는 학과 창립 50주년을 맞아 재학생들을 위해 새로 마련된 GIS강의실 교육용 기자재(PC, 영상장비, 책상 및 의자 등) 2천만원 상당 및 학과 발전기금 1천만원 등 총 3천만원을 모교에 기부했다.

전달식에는 이관제 대외부총장과 지리교육과 81학번 조명일 동문회장을 비롯해 지리교육과 이승철 학과장과 안재섭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의과대학 3기 | 홈커밍데이서 기금 1억원 전달

'의과대학 88학번(3기) 입학 30주년기념 홈커밍데이' 행사가 10월27일 오후 5시 경주캠퍼스 의학관에서 열렸다. 행사는 정용욱 동국대 의과대학장, 탁우택 의대 총동창회장과 편유장 의대 3기 입학대표를 비롯한 88년도 의과대 입학 동문, 교수,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1부와 2부 행사로 나눠 진행됐다.

3기생 일동은 입학30주년 모교방문을 기념해 모금한 의과대학 발전기금 1억원을 정용욱 학장에게 전달했다.

| 인천동문회 | 신임 회장에 안창원 동문



인천동문회(회장 이환섭)는 11월15일 송도 라마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안창원(화학66, 재향군인회 중구 이사, 사진)동문을 선출했다.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신임 회장 선출을 계기로 참석회원들이 앞장서 회원 배가운동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만찬을 즐기며 회원간 우의를 돋구히 했다.

| 대구경북동창회 | 총장배 골프대회 주관



대구경북총동창회(회장 손기범)가 주관하는 '제11회 동국대학교 총장배 영남지역 동문 골프대회'가 10월 25일(목) 경남 양산 동부산CC에서 동문 1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 대회는 지역 동문들간 친목도모와 동문·학교간 소통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해왔다.

신파리오 방식으로 치러진 이날 대회에서는 우병국 동문(우승), 한진석 동문(준우승), 임동백 동문(메달리스트), 백두원 동문(롱기스트), 곽순석 동문(니어리스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골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헌신한 손기범 대구경북총동창회장과 김희수 사회과학대학원 총동창회 총무국장에게는 공로패가 주어졌다.

한편 황수로(모교 석좌교수) 동부산CC 회장은 동국대 발전에 힘을 보태는 의미로 발전기금 1천만원을 이관제 대외부총장에게 전달했다.

| 동국합창단 | 아침고요수목원서 음악캠프



동국합창단(단장 강석우)은 11월3, 4양일간 아침고요수목원에서 단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을 음악캠프를 열고 단원간 친목을 다졌다.

단원들은 곱게 물든 단풍과 국화꽃길을 걸으며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며 힐링시간을 갖는 한편 아름다운 화음을 연출하며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이날 합창단은 2018 동국인의 밤 출연 등 공연 계획과 향후 운영방안 등도 논의했다.

뉴욕동문회 | 매월 친선 골프대회

뉴욕동문회(회장=신창균, 무역74)는 10월 골프모임(회장=윤상윤, 정치60)을 회원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0월20일 오후 12시30분부터 필립 J. 로텔라골프클럽에서 열었다. 이날 회원들은 월례 골프 라운딩을 마친뒤 골프에 참석하지 못한 윤호현 동문 등과 합세해 근처 음식점에서 만찬을 즐기며 동국가족의 친선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3째주 토요일에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 남가주동문회 | 운영모임 열어

남가주동문회(회장 강병선)는 송년모임을 12월8일(토) 오후 5시 동국대학교 LA캠퍼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한다. 남가주동문회는 11월8일 운영모임(동아줄)을 갖고 이와같이 결정했다.

84학번동기회

| 동산회, 속리산 원정산행

84학번 등산모임인 동산회(회장 김철환, 경영)는 11월17일 회원 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속리산 원정 산행을 다녀왔다. 동산회는 매월 서울 근교 산을 찾아 등산 모임을 갖고 있는데 10월27일 남한산성, 9월30일 관악산에서 각각 산행을 갖고 우정을 돋구히 했다.

| 동사회, 2018 사진전

84학번 사진 동호모임인 동사모(회장 이상기, 미술)는 올 한해동안 찍은 사진작품들을 모아 오는 12월20일부터 22일까지 모교 학술문화관 지하 동국갤러리에서 '2018 사진전'을 연다. 동사모는 올해 5월 일본 교토와 오사카 원정 출사를 다녀왔으며 경복궁 서촌일대, 봉은사 등에서 출사 행사를 진행해왔다. 회원은 34명.

연말연시 송년 및 신년모임 안내

- 불교학과(회장 김용표) 12월14일 18:00
충무로4가 대림정
- 경찰행정학과(회장) 12월7일 18:30
모교 상록원
- 불교대학원(회장 임원갑) 12월5일 18:00
모교 상록원
- 경영전문대학원(회장 김창걸) 12월3일 18:00
앰배서더호텔
- 여자총동창회(회장 김애주) 12월17일 18:30
역삼동 아르누보호텔 3층 벤쳐홀
- 4,19혁명동지회(회장 라동영) 12월28일 13:00
종로3가 한일관
- 대구경북지부(회장 손기범) 12월20일
대구MBC 옆 문화컨벤션센터
- 광주전남지부(회장 박태현) 12월12일 18:30
치평동 솔빛마루
- 전북지부(회장 장세균) 12월10일 18:30
전주 중화산동 금양정
- 충북청주지부(회장 김사성) 12월27일 18:30
청주 남문로 토담
- 동대신문동인회(회장 백광열) 11월30일 19:00
충무로4가 아리랑가든
- 동순회(회장 윤태준) 11월30일 18:30
퇴계로5가 옥돌정
- 동국7080회(회장 이계문) 12월3일 19:00
충무로4가 대림정
- 부산지부(회장 박진호) 신년회 1월 하순
장소 미정
- 동공회(사무총장 김종필) 신년회 1월21일 19:00
모교 상록원

한미민주연합회 회장 배시영 동문

“뉴욕에서는 43년 전통의 동국대동창회가 단연 최고죠”

미국 동부지역 동국대동창회 창립의 원년멤버로 40년 넘게 뉴욕에서 동국인의 만형 역할을 해온 배시영(경제58) 뉴욕 동문회 고문의 동국사랑은 지극했다. 배 고문은 전영화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동창회 임원들이 뉴욕지역 동문들을 만나기 위해 인근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8순 고령임에도 김영재(경행72, 三洲건설그룹 회장) 전 회장과 함께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와 반갑게 맞아주었다. 배 고문과 총동창회 임원간의 만남은 가족 이상의 화기애애한 대화가 이어져 시간가는 줄 몰랐다.



매년 미주 각 지역동문 합동모임 가져

- 뉴욕동문회 소개와 활동 들을 듣고 싶습니다.

1975년 동국대 뉴욕동문회가 창립되었는데, 당시 파악된 동문들의 수가 100여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뜻 있는 동문 몇이서 미주한국일보에 동국대학교 뉴욕동창회 창립총회 광고를 내고 동문 찾기를 한 것입니다. 뉴욕 맨하튼 59번가에 있는 유명 음식점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선후배할 것 없이 120여명이 참가하는 대성황이었죠. 초대회장은 장진건(사학, 뉴욕우래옥 대표), 총무는 최무남(경행66)동문이 맡았습니다. 미국에 나와 있는 각 대학 동창회중 우리 동국대가 가장 먼저 창립 테이프를 끊었으며, 다음해에 경희대, 중앙대 등이 뒤따라 동창회를 결성했어요. 서울대 나온 지인은 “서울대는 잘 안되는데 동국대가 잘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요. 그래서 동국대는 기질이 있고, 의리로 뜰뜰 뭉친 대학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매월 정기 모임격인 골프대회, 야유회, 가족동반 등산대회와 신년회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년회 때는 TV 등 다양한 경품들이 협찬되어 모두에게 푸짐한 선물을 안기고, 참석 동문들끼리 어깨 동무를 하고 교가를 부르며 동국인의 자부심을 나눕니다. 3월부터 11월까지는 매월 3째주 토요일에 골프대회를 하고 있는데 40여명 정도 참가하고 있으며, 신년회때는 100여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20년전에 시카고에 계신 이태근 선배님과 함께 창립한 전미주총동창회는 워싱턴에 차경훈, 뉴욕에 김상목, LA에 김경재회장을 비롯해 현재 뉴욕에 김영재회장으로 이어지며 매년 총회를 열어 미 전지역과 캐나다에서 까지의 동문이 모여서 서로 안부를 물으며 친목을 다지고 모교사랑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뉴욕 중심가에서 장사씨름대회로 ‘한국 홍보’

- 우리 뉴욕동창회 고문외에도 한미민주연합회 회장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더군요.

1992년 한국의 유엔가입 1주년을 기념해 열었던 장사씨름대회는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회장을 맡은 한미민주연합회와 범미주무궁화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한국씨름연맹과 KBS가 공동 주최했는데 뉴욕의 중심 34번가, 그것도 세기의 복서 무하마드 알리가 챔피언전을 가진 유명한 메디슨스퀘어가든에서 가졌다는 것이 대단했지요. 한국에서 선수단 초청하고, 연예인 부르고, 또 메디슨스퀘어가든 장소 사용을 위해 27개 각종 단체의 동의

를 받고, 덤프트럭 10대의 모래를 깔고, 소방차 대기하고 준비과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전통 씨름을 홍보한 것으로 보상받은 셈이죠. 이 대회를 3회나 치렀으니 지금 생각해 봄에 대단한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이어지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 1983년 제2회 전 미주 한인체육대회가 뉴욕에서 열린 이래 38년만인 2021년에 제21회 대회가 뉴욕에서 개최되는데 그 유치위원회를 맡았다면서요?

“체육을 통해 뉴욕과 미 전국의 한인사회 결집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는 취지에서 적극 뛰었는데 다행히 결과가 좋았습니다. 뉴욕에서 개최되면 한인사회의 새로운 도약과 분위기 전환점이 된다고 강조했죠. 그때 우리 동국대 동창회 방문단이 오시면 적극 환영하겠습니다.

“모교서 미주 교포자녀 썸머스쿨 유치를”

- 해외에 나가 계셔도 모교가 잘되었으면 하는 바램은 한결 같으실 줄 압니다. 모교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십시오.

총동창회에서 지난 1999년 10월1일~3일까지 북미 주 동문들을 초청해 환영연 및 동국인체육대회를 가졌는데 제가 북미주총동창회장을 맡아 이민휘(정치52) 이태근(정치56) 장정현(경영63) 동문 등 135명이 모교를 방문했습니다. 모교 이사장 녹원스님, 송석구 총장, 총동창회 황명수 명예회장, 권노갑 회장, 류주형 수석부회장 등 재단 학교 동창회에서 대대적으로 환영해주어 감명 깊었습니다. 그때 체육대회를 위해 경주캠퍼스도 방문했는데 서울캠퍼스의 달라진 모습과 경주캠퍼스 교정을 돌아보고 눈부신 발전에 모두들 흐뭇해하던 동문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는군요. 미주동문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 활성화에 큰 뒷받침을 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변했겠죠?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는데, 모교에서 여름방학을 이용해 해외교포 자녀들을 유치해서 썸머스쿨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해외교포 2, 3세들에게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가르쳐주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자는 거죠. 제 손자가 2000년 초에 연세대에서 주관하는 해외동포 썸머스쿨에 다녀왔는데 뉴욕에 있는 한글 간판도 읽을 줄 알고, 뉴스에 Korea만 나와도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서울, 경주, 일산 캠퍼스와 각 지역별 동창회, 그리고 불교종립학교라는 멤버십 스테이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가 되리라 봅니다. 모교

에서 당장 내년이라도 이 썸머스쿨 개설 의지가 있다면 제가 앞장서서라도 모교에 150~200명정도는 보내 줄 자신이 있습니다.

4.19 유공자 건국포장 받아

- 고문님께서는 재학시절에 4.19민주혁명 대열에도 참가하시고, 1961년엔 총학생회장을 지내 동문사회에 많이 알려진 편입니다.

1960년 4.19때는 3학년이었으니까 당연히 참가했었지요. 2010년 4.19 50주년을 맞아 유공자로 선정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포장을 받았습니다. 사실 재학시절 학생활동을 하면서 에피소드도 많지만 여기서 다 말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생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후회는 없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같은 시기의 선후배, 동기로서 함께 학창시절을 보낸 김동영 최형우 장충준 김영구 신민선 동문 등이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는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살다보니 모교 총장이나 동문들이 찾아왔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리지 않고 만났습니다. 故 최재구 전 동창회장과 故 김재형(국문57, 전 KBS드라마국장) 선배 등 많은 동문들과 만나 밤가는 줄 모르고 정답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동문이 피보다 진하다”

- 마지막으로 동문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동문관계는 한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동문이라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피보다 진하게 느껴집니다.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면서 ‘동국’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국 파이팅입니다”

배시영 고문은 1964년 가업인 조광무역(당시 국내 납세 순위 28위) 미주시장 조사를 위해 미국을 처음 방문했으나 정착은 1971년부터였다. 교포도 많지 않은 낯선 땅에서 홀로서기 위해 식료품상회, 가발업을 거쳐 부동산과 무역업에 종사했다. 한미민주연합회장 및 고문, 뉴욕한인체육회장 및 고문등으로 교포사회에 지명도가 높다. 동국대 총동창회 해외 고문이며, 뉴욕동창회 회장을 거쳐 지금은 고문으로 있다. 슬하에 치과의사와 변호사 등 3남1녀의 자녀를 두었다.

송석환 동진기업(주) 회장 · 송설당 교육재단 이사장

법타 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 평화통일불교협회 이사장

“기업 · 교육인으로 사회 기여”



동진기업 회장 송석환(농경64)동문은 기업인과 교육인으로서 각각의 목표를 모두 충실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포장용 플라스틱 제조 사업의 경우, 환경 이슈와 맞물려 성장이 주춤한 것처럼 보였으나 최근엔 친환경 소재로 시선을 돌리면서 새 먹거리를 찾아냈다. 제품 또한 국내외로 꾸준한 수요를 확보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견 기업으로 국내 5개 계열사 · 해외 법인 3곳

또한 매년 매출액의 5%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해 나가고 있어 독점적 기술을 유지하고 있다. 동진기업은 전 직원이 장기 근속하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국내에 5개의 계열사가 있다. 해외법인은 중국, 미국, 캐나다 3곳으로 75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3000만 달러 수출이 목표다. (주)바라는 장남 송승혁 대표가, 상진기업(주)은 차남 송승민 대표가, 동진아메리카는 삼남 송승우 대표가 각각 경영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 회장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매진한 덕분에 해외 시장에서 우수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며 “40년 동안 적자를 보지 않고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근무를 해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깨끗하고 부지런하게”… 송설당 철학 바탕 대이은 인재 양성

송석환 회장은 교육인으로서도 역할이 크다. 그는 송설당교육재단 이사장으로서 자율형 사립고인 모교 김천고의 명성을 이어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설립자 최송설당(1855~1939)은 일제강점기에 전재산을 쓸어 김천고를 세운 여걸이다.

송 이사장은 ‘깨끗하게 부지런하게’ 가 김천고의 교훈이라며 10만3000평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교내가 휴지 하나 없이 깨끗한 환경이라고 소개했다. 또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으로 시설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지금도 최송설당의 건학 이념을 받아들여 입학식을 3월 1일 삼일절 기념식과 함께 실시해 민족 사학임을 드러내고 있다. 민족정신을 함양하고자 복장도 한복으로 갖춰 입고 3·1절 행사를 마친 후 입학식을 치르는 것이다.

송 이사장은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들은 ‘지, 덕, 체’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지만 김천고는 ‘체, 덕, 지’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며 “건강과 예절,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것이 송설학원의 교육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 각지의 명문대에 높은 진학 성적을 보이고 있는 송설학원 소속 김천고는 3학기제, 3품제, 독서능력 강화 등 다양한 동아리 프로그램이 있다.

집안 대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하는 名家

송 이사장의 집안 또한 대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명문가다. 그의 증조부는 춘궁기에 식량을 풀어 마을 주민들을 곤궁에서 구했다고 전해진다. 또 일제강점기 당시 송 회장의 조부 송돈호는 민족지도자 양성을 위해 만든 김천고 설립 과정에서 거액의 사재를 출연했다. 송 이사장의 부친인 송주식 선생은 1949년 농지개혁 당시 집안 소유의 농지 약 500두락을 소작인에게 무상으로 분배해 주었다(동아일보 1949년 3월 8일자 보도 참조). 김천고 출신이자 재단 이사장인 송 회장은 학교 운영과 학력 신장을 위해 재단에 사비로 매년 수억원씩 지원하고 있다. 송 이사장은 “조부와 아버지 때부터 실천해온 따뜻한 나눔을 앞으로도 학교를 통해 이어가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발췌 : 2018.11.20. 동아일보 정상연 기자〉

“북한 명산명찰 순례길 열겠다”



남북화해와 평화를 누구보다 반기는 이가 있다. 1989년 이후 100차례 가까이 북한을 방문한 법타 스님(인철67)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10교구본사 은해사 회주인 법타 스님은 현재 조계종 원로회 의원이자 평화통일불교협회 이사장이다. 남북 불교 교류의 개척자로서 불교계에서는 그를 빼고 남북 교류와 협력을 이야기할 수 없는 위치다.

법타 스님은 1998년 짚주린 북한 사람들을 위해 사리원에 첫 국수공장을 차리고 3년후 평양에 더 큰 국수공장을 차려 하루 7,700명분의 국수를 제공했다. 1998년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던 시기다.

100여 차례 방북 … 사리원 국수 공장 운영하다 중단

“매월 60톤의 밀가루를 인천-남포 해상 항로를 운행하던 화물선을 통해 북에 보내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법타 스님은 다른 한편으로 6.25때 폭격으로 소실된 금강산 신계사, 개성 오관산 령통사 등 사찰 복원에 나섰다. 불교계 통일운동의 선두에 선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가진 것이라고는 승복 한 벌 뿐인데 당국에 승인을 받고 정상적으로 방북했으나 1994년 신 공안정국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인기가 추락하니까 주사파라하여 각계각 층에서 700여명을 잡아갔고 불교계 대표로 나를 잡아간 것입니다.”

법타 스님은 교도소에서 나오자 오히려 더욱 활발하게 남북협력 활동을 펼쳤다.

“제 일신의 안위보다 북한 동포들의 모습들이 절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남북 통행의 문을 폐쇄하고, 박근혜 정권 역시 대결주의로 나가면서 2007년 이래 나의 대북 사업이 중단되었지요. 배고픈 사람에게 국수 한그릇 먹이지 못하게 하는 정권이었습니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남북 교류의 의미를 되새겼다.

“길이 열리면 사람은 통행하고 닫힌 것들도 열린다”

“길이 열리면 사람이 통행하고, 닫힌 것들이 열립니다. 그러면 상호 가졌던 편견과 오해들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한 국민들간에 쌓인 불신과 오해들이 풀리는 계기가 올 것입니다. 현지 주민과 만나면 악마화했던 시선이 얼마나 허구이고, 황당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 북한과 협력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1975년 미국 유학길에 올라 콜로라도 덴버대학을 거쳐 LA USC에서 학업을 계속 했지요. 박사과정을 밟을 때 지도교수와 학위논문 주제를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학생의 특수한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주제를 선정하면서 ‘남북한 성직자 비교연구’로 좁혀서 논문을 쓰도록 권했어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 북한의 종교 실태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국내의 북한 종교 자료는 거의 백지상태. 그러나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 출판물이 정기적으로 정확하게 대학 도서관에 배달돼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신다면?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이 가시화된 만큼 기왕의 불사 원력과 생필품과 먹거리를 제공하는 일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6.25 이전의 북한 사찰 복원에 나서겠습니다. 북한 스님을 남한에 초대하는 등 북한 불교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보현사 성불사 영통사 신계사 등 북한 사찰 순례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뷰 이 계 흥(본회 홍보분과위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이계문 동문



이 계 문(산 공 80)동문이 910월 5일 신임 서민금 융진흥원 원장 및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 했다. 이 원장은 금융·재정·정책조정 등 경제·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대내외 협력, 조정 능력을 높이 샀다.

이 원장은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들어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재정부 국제금융국 및 정책조정국, 기

획재정부 예산실 문화방송·국방예산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및 대변인 등 경제부처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미소금융·바꿔드림론 등 각 기관에 흘어져 있던 서민금융 지원 기능을 종합하고 서민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기구다. 하나·국민·우리·신한·농협 등 5대 은행과 자산관리공사(캠코)가 25억원씩 출자했으며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도 각각 17억원, 11억원을 출자해 세워졌다.

한국인 최초 인터폴 총재



김종양(대학원00,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동문이 10월21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87차 인터폴(회원국 194개국) 총회에서

세계 각국 경찰간 공조와 협력을 종합하는 인터폴(ICPO, 국제형사경찰기구) 수장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 경찰 재직 당시 LA주재관, 경찰청 핵안보기획단장과 외사국장 등 국제업무관련 보직에 근무했다..

청와대 교육비서관



이광호(교육대학원 01)동문이 9월7일 청와대 신임 교육비서관에 임명됐다.

2003년 성남시에 문을 연 대안학교인 이우학교에서 평교사부터 교장까지 지낸 교육 현장 전문가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관 등을 지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김선민(대학원박사 11)동문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으로 승진했다. 행정고시 34회로 산업부 기술규제대응국장, 국무조정실 산업과학기정책관, 산업부 무역정책관 등을 지냈다.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



오일석(통계81) 동문이 9월28일 현대자동차그룹인 현대차엔터프라이즈 IT사업부장(상무) 전무 승진과 함께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정보기술(IT) 관련 기획과 실무를 두루 경험하며 높은 전문성을 쌓아왔으며, 향후 현대차그룹의 정보통신기술(ICT)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야구 KT위즈 이강철 감독



이 강 철(회 계 85) 동문이 프로 야구 'KT위즈' 3대 감독으로 11월 18일 취임했다.

KT위즈 관계자는 "이 감독은 다년간 검증된 지도력 뿐만 아니라 선수단의 체질 개선과 승리 의지를 고취시켜 줄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모교 야구부 선수로 마운드를 지켰던 이 감독은 4회 우승과 4회 준우승에 기여했다. 1989년 해태 타이거즈

(현 KIA 타이거즈)에 입단, 10년 연속 10승 및 100탈삼진 달성을, 1996년 한국시리즈 MVP 등 KBO 역대 최고의 언더핸드 투수로 자리매김했다.

2005년 은퇴 이후 KIA 2군 투수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고, KIA 1군 투수코치와 네센 수석코치를 거쳐 2017년 두산 베어스 2군 감독을 맡았다. 2018 시즌에는 두산 베어스 수석코치를 맡아 정규 시즌 우승에 기여했다. 계약 기간은 3년, 계약금 포함 총액은 12억원이다.

취 임 · 당 선

민주당 노인위원장



선진규(불교55, 봉화산 정토원장, 더불어민주당 고문) 본회 고문이 10월8일 민주당 전국 노인위원장에 선출됐다.

선 위원장은 "고령화 시대 1000만 노인의 영향력은 정치권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노인복지 정책을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수시로 학술대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중앙과 시도에 공용사무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항보안공사 사장



류국형(경행83) 동문이 11월5일 인천항보안공사(IPS) 신임 사장에 취임했다. 1990년부터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하며 경호과장·경호부장·교육원장, 경호본부장 등을 지냈다. 인천항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IPS는 2007년 인천항만공사 자회사로 설립되었다.

남해마늘연구소 연구소장



경규항(식공68) 동문이 11월7일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제4대 연구소장에 선임됐다. 미시간주립대학원 식품공학 석사, 동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박사학위를 취득 후 세종대 바이오융합공학과 교수로 32년간 재직했다. 임기는 3년.

GFN 광주영어방송 사장



배승수(법학74) 동문이 11월22일 열린 광주영어방송재단 이사회에서 제4대 GFN 광주영어방송 사장에 선임됐다. 광주MBC 기자, 취재부장, 경영국장, 보도국장과 광주청자미디어센터장을 역임했다.

교육기업 휴넷 회장



권대욱(대학원 박사 97) 동문이 9월12일 직장인 교육 전문업체인 휴넷 회장에 취임했다. 직무·자기개발교육, 자격증, 정부지원 무료 교육, 회계·기획·전략·OA·어학 등 다양한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행 사

아동·여성폭력 방지대책 세미나



인천광역시군구발전 협의회장 최종협(경제 54)동문이 인천광역시 후원으로 10월18일 연수구청 지하 아트홀에서 아동 및 학교폭력·여성폭력 방지대책 세미나 및 음악회를 열었다.

한국청소년영화제 조직위원장



김오현(체교76, (주)아미건 회장)동문은 10월19일 광주5.18광장에서 개막된 한국청소년영화제 조직위원장을 맡아 행사를 주도했다. 청소년영화제는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대학생들이었던 시민들을 주축으로 1999년부터 매년 진행해오고 있다. 김동문은 지난해부터 조직위원장으로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고 있다.

수 상

문덕수문학상



홍신선(국문62, 동국대 명예교수)동문이 재단법인 심산(心汎)문학진흥회가 주관한 제4회 문덕수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시집 '직박구리의 봄노래'로 상금은 2000만원이다. 시상식은 12월 3일 서울대학로 함춘회관에서 열린다.

워라밸 문화 확산 공로상



김종필(정외82, 내일신문 정치부장) 동문이 11월14일 (사)한국여가문화운동연합회가 개최한 '2018 일과 삶의 균형(Worabell-Walk & Life Balance) 사례와 전망' 콘퍼런스에서 워라밸 문화 확산 기여자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 수상



방정란(인철99)동문이 제15회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 수상자로 선정돼 11월21일 시상식에서 연구지원금 1천만원을 받았다. 아리아슈라가 저술한 <빠라미따사마사>를 번역했다.

전시회

제16회 오성만 조각전

오성만(미술82, 용인고립고) 동문은 '질박하고 고졸한 조형언어의 프리즘'을 주제로 11월3일~11일까지 북촌 갤러리스페이스 선+에서 제16회 개인전을 가졌다.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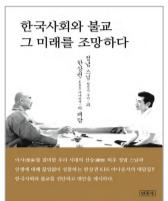
'박영석 대장 탐험도전정신의 날'

세계 최초로 산악그랜드슬램을 달성한故 박영석(체교83) 대장의 탐험도전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10월18일 중앙도서관 박영석 부조 앞에서 개최했다.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박영석 대장은 △2001년 세계 최단기간에 히말라야 8000m 14개봉 완등 △2005년 인류 최초 산악그랜드슬램(7대륙 최고봉 등정 및 3극점 도달)을 달성했다.

박영석 대장은 2011년 10월18일,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남벽을 새로운 루트로 오르다 불의의 사고로 실종됐다.

한국사회와 불교, 그 미래를 조망하다



정념스님 · 한상권 지음 / 민족사

KBS 아나운서 한상권(경영89)동문이 묻고 오대산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학교법인동국대 이사)이 대답한 '한국 사회와 불교 그 미래를 조망하다'는 대담집이 최근 출간됐다.

정념스님은 이사(理事)를 겸비한 우리 시대의 선승이며, 한상권 동문은 인생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로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심층보도의 아이콘이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와 같은 삶에 대한 주제로 시작해 부정부폐, 양극화, 신자유주의, 남북문제 등까지 다양한 사회 문제와 현상에 관해 이야기한다.

또한 마음 치유와 해탈, 명상과 힐링, 탈종교 시대 종교의 역할, 한국불교의 현재와 미래 등 종교와 깨달음에 대한 대화가 이어진다.

4부로 나뉜 제1장은 인생, 제2장 한국사회, 제3장 명상과 마음, 힐링, 제4장 종교와 제5장 불교 전반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無配格 - 쇼핑의 미래

김영호 지음 / 빨간코끼리



김영호(무역79, 김앤커머스 대표)동문이 '무배격 - 쇼핑의 미래'를 펴냈다. 무(무인스토어), 배(배달), 격(품격)은 미래의 쇼핑 세상을 이끄는 핵심 키워드다. 최근의 일류기업들과 일류 브랜드의 순위를 보게 되면 일상점유율 상위의 기업들이 대표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아마존, 넷플릭스, 애플, 유튜브, 구글 등 주식시장에서의 황금주 종목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들은 無, 配, 格의 위력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실천했기에 지금처럼 일류기업으로 자리매김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저자는 지금까지 38개국, 73개 도시의 마켓서베이를 완수했다.

그는 실물 트렌드 최고 전문가다. 컨설팅 회사 대표, 글로벌 라이프 트렌드 전략가, 컨설턴트, 작가, 기자, 교수, 상품평론가 등 여러 직함을 가지고 있다.

내 몸속의 새를 꺼내주세요



문정희 지음 / 파람북

문정희(국문66, 시인, 모교 석좌교수)동문이 시집 '내 몸속의 새를 꺼내주세요'를 펴냈다. '여성성'을 주제로 가려 뽑은 66편의 시에, 시인과 반평생 우정을 나눠온 재미화가 김원숙 작가의 그림 41점을 보탰다.

수록된 시편들은 가부장적 관습 속에서 여성들이 겪는 비애와 독립적 존재에 대한 각성, 마침내 신성을 회복하고 창조적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여성적 생명의식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 활달하고 당당한 시적 태도를 보여주지만, 그 안에 존재의 비극성과 외로움 등도 엿볼 수 있다. 1969년 등단해 올해로 시력 50년을 맞은 문 시인은 1969년 등단 이후 현대문학상, 소월시문학상, 정지용문학상, 육사시문학상, 천상병시문학상, 목월문학상, 청마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조선 여인 금원

안동일 지음 / 인북스



안동일(철학77)동문이 장편 팩션 역사소설 '조선여인 금원' (인북스)을 펴냈다.

"조상 잘 만나 평평거리며 대대손손 잘사는 양반들 세상 말고, 천출이어서 못나고 가진 것 없는 상것들도 아픔 없이 살아가는 세상, 만들어주시겠소?"

이 소설은 민중들의 개화로 봉건사회가 몰락의 조짐을 보이던 조선조 말, '호동서락기'라는 걸출한 문집을 남긴 기생 출신 여류시인 김금원을 주인공으로 하여, 신분사회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한 양반 계급의 역사적 고질병인 갑질과 이에 맞서는 서얼, 노비, 천민들이 중심이 된 (乙)들의 저항과 투쟁을 그렸다. 1993년 7월, 통일 염원 소설 '해빙' (전 3권)을 발표했으며 이 소설은 그 후 SBS-TV에 의해 16부작 미니시리즈로 드라마화되어 방영되었다.

반지하에서 반포아파트 입성하기



이재국 지음 / 메이트북스

이재국(건축81, 서일대 명예교수)동문이 '반지하에서 반포아파트 입성하기'라는 책을 최근 출간했다. 신혼을 지하 단칸방에서 보낸 저자가 어떻게 반포 아파트 2채를 소유하게 됐는지 생생한 경험과 투자 노하우를 담았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집 마련을 꿈꾸지만 좀처럼 쉽지 않다. 그동안 부동산투자들의 투자 패턴을 보면서 기초적인 투자원리나 지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감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안타까워한 저자가 30년간의 부동산 지식과 노하우를 한 권에 담았다. 저자는 오랫동안 건축과 부동산 분야에 몸담으면서 내집 마련을 위한 고민과 성공적인 투자 방법을 항상 생각하며 활동해왔다. 이 책에는 성공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패한 이야기까지 가감 없이 담겨있다. 따라서 부동산 재테크를 하려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자신의 투자 성향을 되돌아보고, 재테크 방향을 옮바로 잡는데 길잡이가 될 것이다.

너, 찬란한 나의 별

김찬웅 지음 / OBJ미디어



김찬웅(국문82)동문이 최근 '너 찬란한 나의 별'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은 조선시대의 로맨스를 그린 것으로 첫 만남에 깊은 사랑에 빠진 조선 최고의 연예기획자인 별감 이수민과 조선 최고의 춤꾼 기녀 운향의 슬프도록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와 두 사람의 사랑을 아프게 지켜보는 조선 최고의 무인 권치운의 애절한 사랑이 녹아 있다.

소설의 무대인 숙종 재위기간 동안 경신환국(숙종 6년)과 기사환국(숙종 15년), 갑술환국(숙종 20년) 등 세 번의 환국을 겪는 사회상도 적나라하게 스며있다. 김동문은 대학 졸업후 영화 시나리오 작가와 홍보 업무 등을 거쳐 대기업 사보와 단행본 출판사 편집장을 지냈다. 제3회 인터넷문학상 장편소설 부문에 「나에게는 그녀가 있다」가 당선되었다.

사단법인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중앙회장 오정석
(농학과 72학번)

TV조선 · 동아일보
'2018 경영대상'
수상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번없이 1397 1 3
2 4
5 6
7 8
9

모든 서민금융을 한자리에서 간편하게

서민금융 지원센터



▣ 자금지원

- 햄살론
- 바꿔드림론
- 미소금융

▣ 신용회복지원

- 개인워크아웃
- 프리워크아웃
- 개인회생 · 파산 신청

▣ 고용·복지연계

- 일자리상담
- 노후행복설계

▣ 종합상담

- 신용 · 재무상태 진단
- 창업 · 운영 컨설팅

“기부자님 감사합니다”



모교는 11월20일 오후 6시 그랜드앰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학교발전에 기여한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부자 초청 감사의 밤’을 열었다.

기부자들과 가족 등을 초청한 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광스님, 한태식 총장, 전영화 총동창회장, 세스코 전순표 회장, 신라교역 박준형 회장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해 행사를 가득 채웠다.

대외협력처(처장 종호스님)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으로 시작하여 1부 총장 환영사, 이사장 식사, 조계종 총무원장 치사, 총동창회장 축사, 조계종 종정 영상법어, 이의수 기획부총장의 학교 현황 및 주요 성과 발표, 2부 만찬 및 감사공연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주요성과로는 보광스님 재임기간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금 모금액 상액은 600억원으로 발표 했다.

언론정보대학원 30주년 행사 성료



언론정보대학원 개원30주년기념 행사가 ‘개원30년의 성과와 미래를 향한 도전’을 케치프레이즈로 11월21일 오후 중구 인현동 PJ호텔(옛 풍전)에서同대학원(원장 김관규)과 同대학원총동창회(회장 윤재민, 1기) 공동 주최로 열렸다.

역대 대학원장 · 교수, 동문, 재학생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이의

수 모교 부총장 치사, 전영화 총동창회장과 노웅래 김광온 국회의원 등이 축사를, 김태홍 초대 대학원 학감 및 2대 대학원장의 회고사를 통해 개원 30주년을 기렸다. 또 하동근 동문과 유일상 교수 등 4명은 총장 감사패를, 김종수 박광성 김흥기 오만식 이재용 동문은 대학원장 공로패를 받았다.

각종 국가고시 합격소식 잇달아

모교는 2018년도 5급(행정)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 3명, 제35회 관세사자격시험 2명, 제53회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21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10월2일 밝혔다.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는 전국대학 12위이다.

이번 행정고시에서 김도균(경찰행정), 김세훈(북한학), 문채빈(법학) 등 총 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관세사시험에서

는 장지연(영어통번역학), 진현우(국제통상학) 등 2명이 합격했다. 또한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김연상(광고홍보학)씨를 비롯해 김동욱(경제학), 김범석(회계학) 등 총 21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모교는 고시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각종 국가고시에서 매년 눈에 띠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공과대학, 6개학과 공학교육평가 ‘인증’

모교 공과대학(학장 김용)이 2018년 공학교육인증평가에서 대상 학과(전공)가 모두 인증을 획득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이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한 학과(전공)는 ▲건설환경공학과 ▲건축공학전공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화공생물공학과 등 총 6개 학과다.

경주캠퍼스, 대학 특성화사업 ‘A등급’

경주캠퍼스가 11월7일 발표된 교육부 대학특성화사업(이하 CK사업)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종합평가는 전국 108개 대학, 321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 추진한 사업실적을 대학 소재지 및 대학 규모를 고려한 상대평점을 통해 3개 등급(A·B·C)으로 평가한 것이다.

북한학研, 인문사회 중점연구소 선정

모교 북한연구소(소장 고유환 교수)가 9월11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18년 인문사회분야 대학 중점연구소에 선정됐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최대 6년 동안 연 2억원 안팎을 지원받아 북한의 도시 경관과 사회규범, 일상 등 사회 변화를 총체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통계학과, SAS 분석 챔피언십 ‘대상’

모교 통계학과팀이 9월14일 발표된 SAS코리아 주최 ‘제16회 SAS 분석 챔피언십’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 390여 명, 212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1차·2차 심사를 통과한 6개 팀이 최종 결선 무대에 올라 분석 수행 결과 및 활용 전략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결과 모교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빅데이터 X캠퍼스 우수프로젝트 ‘대상’

모교 산업시스템공학과 이광제 외 3명으로 구성된 수박팀이 한국데이터진흥원에서 열린 ‘2018년도 빅데이터 X캠퍼스 우수프로젝트’ 경진대회에서 ‘이미지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활용한 AI 코디네이터’로 대상(한국데이터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국제 아이디어대회 금·은·특별상 수상

모교 학생창업팀이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창업경진대회에서 쟁쟁한 후보들을 물리치고 금상과 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10월1일부터 4일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2018 독일 국제 아이디어 · 발명 · 신제품 전시회(International Trade Fair Ideas-Inventions-New products’ (이하 iENA 2018)에 2개의 학생창업팀이 출전해 전원 수상했다.

중국 청도 글로벌창업경진대회 1위

모교 학생창업팀이 10월27일부터 2일간 중국 청도에서 열린 ‘YES Startup 2018 Chengdu 글로벌 창업경진대회’에 4개 학생창업팀이 글로벌 참가팀 1위에 해당하는 Best International Idea상과 Best Idea상을 수상했다.

대만 국제발명전시회 전원 수상

모교 창업동아리들의 우수한 창업 아이템이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발명전시회에서 금상과 은상을 휩쓸었다. 모교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타이베이 세계 무역 센터에서 열린 ‘2018 대만 국제발명전시회’(2018 Taiwan Innotech Expo)에 참가한 2개의 학생창업팀이 전원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dongguk
UNIVERSITY

세계속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전통과 저력의 **명문사학**



나를 바라 보는 또 다른 세상



도심 속 고요한 휴식공간 낙산묘각사 템플스테이

도심 속에 있는 묘각사에서 고요히 나를 돌아보며 재충전하는 시간 되세요.

Where is your mind?

- ▶ 1박2일 체험, 당일 체험
- ▶ 108배, 참선, 다도&스님과의 대화, 예불, 타종, 사찰안내

낙산묘각사 템플스테이

주 소 : 서울 종로구 종로63가길 31(송인동) 전화 : (02)763-3109
홈페이지 : www.myogaksa.net

dongguk
UNIVERSITY | 행정대학원 · REACEO

2019

동국대학교 「부동산·자산관리 최고경영자과정」



제41기 부·자 AMP

▶ 교육 구성

구 분	내 용
교육기간	2019년 3월 12일(화) ~ 2020년 2월 11일(화)
교육장소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 첨단강의실
교육시간	매주 화요일 18:30 ~ 21:30 1월 1 ~ 2강좌
교육내용	부동산 시장 현황, 부동산 개발·금융, 부동산 투자·정책 / 자본시장 현황, 자산 운용·관리 / 채테크 및 사례연구 등

▶ 원서 접수

구 분	내 용
원서접수	2019년 3월 11일(월)까지 선착순 접수
서 류	입학지원서, 사진
접수방법	홈페이지 : http://www.digureceo.com FAX : 02.2263.8576 이 메 일 : reaceo@dongguk.edu 우 편 : 04620 서울시 종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 516호

「은퇴 및 노후를 대비한 종합 프로그램」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각종 회비와 기금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 회비 · 기금 납부시 성명 · 입학년도 · 학과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 만원)

회비 국민은행 006001-04-237869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302-718184
(예금주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 2018년 9월 1일 ~ 11월 27일 접수분 〉

발전기금 \$ 1,000		고문분담금 100만원					
배시영 (58경제) 한미민주연합회 대표		김성재 (58정치) 경주중앙청과 회장	김희옥 (68법학) 현법직가치연구원장	백경남 (61정치) 모교 명예교수	서영준 (64법학) 동양 회장	송석구 (58철학) 前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	
							
심경모 (57영문) 서정연구소 대표	이민희 (52정치) Train Woorks 회장	이황우 (63경행) 모교 명예교수	형종호 (56법학) 삼공기어공업 회장	고사 100만원	고용규 (70정외) 동우들 대표이사	김진수 (78행정) 창명기업 대표	
부회장 100만원							
김덕경 (76경행) 성지환경기술 대표이사	김상일 (75건축) 집현이앤씨 대표이사	김영태 (96행대원) 모교 겸임교수	김영화 (63경행) 前 종로경찰서장	김재웅 (65경영) 우성애디엠 대표이사	김태현 (03경영) 고려철강 대표이사	문한성 (79법학)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민병덕 (74경영) 모교 석좌교수	박순 (66불교) 대한민국 회화제 대표	박태권 (71정외) 前 국회의원 · 충남지사	성영석 (67경영) 한국포리머 회장	원명스님 (67인철) 관음사 주지	윤성이 (83농경) 모교 대학원장	윤종기 (79경행)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이계홍 (65국문) 前 서울신문 논설위원
							
이환섭 (71경행) 인천재향경우회 회장	조은구 (64경제) 동양에스텍 대표이사	허창식 (75영문) 한빛안전기술단 사장	홍석표 (75경영) 금우회 조직총괄본부 대표				
고문분담금	상임이사 (20만원)	사기순 (84국문) 손양호 (70불교) 신형철 (77체교) 오택원 (73국문) 이문호 (72임학) 이상칠 (79사회) 장승수 (88언대원) 정미정 (08문대원) 정호경 (95불대원) 조시승 (69경제) 조윤오 (94경행) 차진구 (78건축) 한성규 (65물리)	김범동 (92무역) 김봉수 (64통계) 김봉식 (62불교) 김상숙 (69대학원) 김수열 (82화공) 김시현 (60임학) 김영석 (80회계) 김영호 (82경영) 김용해 (79행대원) 김윤상 (65정외) 김이근 (61농학) 김종배 (82수교) 김종상 (79회계) 김종택 (86대학원)	박윤식 (79사회) 박재정 (80통계) 박준엽 (89화공) 박진억 (88국문) 박천희 (85미술) 배원 (85농경) 법련사 변정용 (76전산) 보경사 불암사 서형석 (78공업경영) 석굴암 석남사 소두영 (81경영) 송라사 송성환 (66경제) 남윤지 (80사회) 내원사 노만사 노창희 (65법학) 묘광사 미륵암 미타암 민갑룡 (대학원) 박상훈 (90경제) 박옥정 (16행대원)	윤연규 (95경대원) 윤장근 (65법학) 윤환 (66사학) 이경자 (94불대원) 이경찬 (61법학) 이관숙 (08행대원) 이국섭 (99경대원) 이규석 (84회계) 이근우 (61불교) 이근형 (83임학) 이길자 (74승가) 이남형 (59정치) 이동원 (90경행) 이상길 (89영문) 이상삼 (80건축) 이상현 (06대학원) 이석원 (76전기공학) 이세준 (60정치) 이옥동 (82영문) 이재식 (73건축) 이재혁 (99화공) 이종규 (81경영) 이창섭 (75경영) 이춘삼 (82회계) 이충환 (71통계) 이훈 (82수학)	임명구 (89건축) 장경사 5만원 장세용 (89회계) 장원동 (93사대원) 장형순 (85전기공학) 전상윤 (89회계) 전예준 (83국사교육) 전정수 (03불대원) 이근우 (61불교) 정각사 정경률 (89건축) 정규수 (81건축) 정종철 (87농생) 정현종 (67농경) 조병권 (85경대원) 조한구 (67상학) 주용민 (75경영) 주웅식 (99행대원) 지원스님 (07불대원) 진한승 (86불교) 차권준 (88통계) 채희석 (90법학) 천은사 청련암 최낙복 (78수교) 최상범 (90물리) 최영란 (86지교)	최희규 (90생물) 태충명 (00불대원) 표종섭 (85고고미술) 표충사 하미정 (85국어교육) 학도사 한종욱 (96대학원) 한홍택 (82무역) 함상섭 (57정치) 항천사 허남결 (84국민윤리) 호영송 (62연영) 홍순문 (09선학) 황선관 (66경행) 황종환 (96행정) 황창순 (74화공)
부회장	이사 (10만원)	강태호 (75조경) 김석희 (57법학) 김용표 (69불교) 김학진 (66농경) 박정현 (82정외) 윤정민 (08한의) 이명선 (67농학) 이춘필 (99불대원)	김신제 (73토목) 강원순 (78행대원) 강인영 (81건축) 광덕사 김경미 (98불대원) 김기복 (87행대원) 김기원 (59법학) 김동찬 (78식공) 김명호 (61식공)	김천수 (52경제) 김춘수 (81화공) 남윤지 (80사회) 내원사 노만사 노창희 (65법학) 묘광사 미륵암 미타암 민갑룡 (대학원) 박상훈 (90경제) 박옥정 (16행대원)	신현철 (71무역) 심복사 심적사 양승렬 (60연극) 양정기 (65통계) 엄기환 (89일문) 민갑룡 (대학원) 박상훈 (90경제) 박옥정 (16행대원)	이상길 (89영문) 이상삼 (80건축) 이상현 (06대학원) 이석원 (76전기공학) 이세준 (60정치) 이옥동 (82영문) 이재식 (73건축) 이재혁 (99화공) 이종규 (81경영) 이창섭 (75경영) 이춘삼 (82회계) 이충환 (71통계) 이훈 (82수학)	발전기금
김영순 (65화학) 월 10만원							박경준 (73불교) 30만원 이좌범 (64사학) 5만원 김종필 (82행정) 월 3만원 누계 : 105만원 동명사 월 2만원 누계 : 114만원
지도위원 (30만원)							
강병국 (64농경) 김석기 (85행대원) 김성강 (60법학) 김진용 (58경행) 김창환 (65경영) 김난영 (82경행) 박도근 (61상학) 변종국 (65경제) 변태원 (59법학) 서운길 (64불교) 심현식 (59상학) 윤길한 (64정외) 이기화 (57경제) 이제곤 (64경제)	권연옥 (72행대원)	김경호 (65경행) 김수웅 (64경제) 김영석 (87법학) 김영희 (71식공) 김완규 (89불교) 김진길 (72행정) 김진길 (99산대원) 김채문 (99법학) 김기원 (59법학) 김동찬 (78식공) 김명호 (61식공)	강신제 (73토목) 강원순 (78행대원) 강인영 (81건축) 광덕사 김경미 (98불대원) 김기복 (87행대원) 김기원 (59법학) 민갑룡 (대학원) 박상훈 (90경제) 박옥정 (16행대원)	김천수 (52경제) 김춘수 (81화공) 남윤지 (80사회) 내원사 노만사 노창희 (65법학) 묘광사 미륵암 미타암 민갑룡 (대학원) 박상훈 (90경제) 박옥정 (16행대원)	신현철 (71무역) 심복사 심적사 양승렬 (60연극) 양정기 (65통계) 엄기환 (89일문) 민갑룡 (대학원) 박상훈 (90경제) 박옥정 (16행대원)	이상길 (89영문) 이상삼 (80건축) 이상현 (06대학원) 이석원 (76전기공학) 이세준 (60정치) 이옥동 (82영문) 이재식 (73건축) 이재혁 (99화공) 이종규 (81경영) 이창섭 (75경영) 이춘삼 (82회계) 이충환 (71통계) 이훈 (82수학)	

ACCOR HOTELS | AMBASSADOR

전국 23개 아코르 앰배서더 호텔에서 최상의 가치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표 호텔 전문 기업 앰배서더 호텔 그룹과
세계적인 호텔 운영 기업 프랑스 아코르 호텔이 만나
럭셔리 특1급부터 합리적인 라이프 스타일 호텔까지
다양한 호텔 브랜드를 제공합니다.

그랜드 앰배서더 | 경원재 앰배서더 | 풀만 앰배서더
노보텔 앰배서더 | 머큐어 앰배서더 | 이비스 앰배서더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 노보텔 스위트 앰배서더



Best Price Guarantee!

Ambatel.com이 제공하는 객실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을 찾으시면 그 가격에서 10%를 더 할인해 드립니다!

www.ambatel.com